

#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특성 유형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Volunteers'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and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권 영 숙\*\* · 이 영 민\*\*\*

Kwon, Young-Suk · Lee, Young-Min

### ■ 목 차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A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207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개인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형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원봉사활동 특성, 사회적 자본측정 등 3부분으로 구성된, 자기보고 형식의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와 활동 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미혼보다는 기혼이,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보다 고졸학력의 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하위 종속변인인 신뢰는 응답자 자신의 계층에 관한 수준인식,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태

\* 이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팀장(주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조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1. 1. 30, 심사기간(1,2차): 2011. 1. 31 ~ 2011. 3. 28, 게재확정일: 2011. 3. 28

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변인은 직업유무와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규범형성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태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자, 사회적 자본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s of volunteers'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on their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focusing on 207 volunteers in A community service center in Seoul metropolitan area. Main research method was self-reporting survey, consisting of the respondents' demographic information, their volunteer activities, and social capital measurement. Main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volunteers who were women, old ageing, married, and having high school degree earners participated more actively in the frequencies and types of volunteer activities than others. Also, they were engaged in volunteering with self-motivation and service-centered mind. In term of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the interests and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volunteering activities have highly impacted the volunteers' trust, networking, and social norms. It was expected that the active engagement in volunteering activities had affected the formation and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in community-based society.

□ Keywords: Volunteer work, Volunteer, Volunteering activities, Social capital

## I. 서론

과거에는 기계, 장비, 토지와 같은 물질 자본이 경제발전과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다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체화된 지식과 기술 등 인적자본이 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물질, 인적자본이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더라도 사회관계에서 존재하는 신뢰와 결속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면의 이슈로 부각되었다(김동현·김영재·이영찬, 2006). 또한 사회적 자본의 보유 실태와 측정을 다루기 위한 정책적인 수준의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실태조사 등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김태준·최상덕·장근영·이기홍, 2009).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정홍인, 2008),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일체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 사회적 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되고 있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구직활동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경제조직의 효율성,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이르기까지, 근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사회학적 개념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경제적 효과, 정부 신뢰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으로 바람직한 사회, 지속가능한 정부 정책의 전제로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정부정책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 중이다. 또한 민간부분의 경우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축적하기 위한 네트워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있다(Raad, de, 2003). 이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며, 구성원 간 신뢰와 상호간의 관계 형성이 촉진되며, 상호관계의 원만한 지속은 궁극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의 신뢰 증진과 사회적 규범 형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김상민, 2005).

자원봉사활동은 비영리활동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있어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을 수행하는 많은 민간부분의 비영리 조직들의 활동은 자원봉사라는 민간의 자발적인 행동에 힘입어 이뤄지고 있다(손원익·박태규, 2008). 즉,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행위는 민간 스스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발전하는데 필요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일을 돕고 있는 것이다. 민간 활동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정부 예산과 지역사회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며 사회복지의 외연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개인의 자유의지와 시민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최근에는 시민사회의 성장, 참여민주주의의 확대와 같은 사회적·제도적인 측면으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김경동, 2007).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서로간의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에 영향을 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높은 수준의 신뢰,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적 규범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개인의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며 연결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 전체적인 소속감과 상호 호혜성과도 연결된다(강효민·박기동, 2008).

한국의 자원봉사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연구 작업은 지난 1970년대 후반부터 자원봉사활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구들로 시작되었다(남기철, 2007). 그 이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조사로 발전한 연구주제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특성분석,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자원봉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신뢰에 기

초한 사회적 자본이 사회 공공선의 구현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연구들로 그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자원봉사가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예, Robinson & Williams, 2001),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예, Chan, Cheng, Fong, & Lai, 2006),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김태준 등, 2009)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적 자본 개념과 관련되는 연구들 역시 사회연결망에서의 활동관계, 교환자원관계 유형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 기저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이 개인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상호 신뢰, 네트워크 확대, 사회적 규범 형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이며 조직적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현대사회가 개인화, 불평등화되어가는 사회 환경 속에서 신뢰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증진으로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대한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개인적 측면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은 물론 사회의 건강성과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잠재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 개인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자원봉사자 개인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 사회적 자본형성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과 영역

한국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다(제3조의 1). 또한 동법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및 비정파성과 비종파성의 원칙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동법 제2

조의 1).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활동이란 문제발생 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결과적 활동 이라기보다는 문제의 예방, 재발, 통합이라는 흐름에 맞추어 보다 초기적 단계에서부터 문제의 식을 갖는 능동적 활동이며, 예방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조선주·한동우·이선행, 2009).

현대적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여러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남기철, 2007). 첫째, 불완전한 우리나라의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한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국민의 생활안정 및 의료, 교육, 직업 등과 같은 최소한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부분들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개개인의 가치 있는 여가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만족을 추구할 수 있다. 넷째, 시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도록 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이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 사회성 함양, 적성과 진로를 탐색하는 개인발전의 단계가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이타적인 의식의 발현이 주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 활동도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개인의 인격, 정서, 신체,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기초로,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발성(自發性)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둘째, 무보수성(無報酬性)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따라서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형의 금전적인 혜택이나 인센티브는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지만 자원봉사활동의 이념이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셋째, 공익성(公益性)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활동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활동이 아니라 타인과 지역사회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인 활동이라는 것이다. 넷째, 지속성(持續性)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 영역 및 분야는 활동처와 활동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 문화·체육 분야, 교통질서분야, 환경보호분야, 보건·의료 분야, 국제관계 분야, 공공분야, 재난·재해 구호분야, 교육활동, 분야, 소비자보호, 분야 등으로 나뉘며, 그 대상에 따라 활동내용과 활동장소가 상이하다. 예컨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주된 활동처는 보육원, 영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생활시설이 될 수 있고, 활동 내용은 노력봉사, 상담, 교육, 미용, 사무보조, 가정방문, 나들이 지원, 심리치료 등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자원봉사 분야, 활동내용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

## 2.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실체와 특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만 이루어진 상태이다. 사회적 자본이 조직이나 개인이 보유한 사회적 관계의 네트워크와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자원의 집합으로 보는 견해(예, 박혜원·문형구, 2009)도 있는데 반해, 사회구조를 이루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의 혼합체이자 무형자산으로 보는 시각(Tsai & Ghoshal, 1998; 정홍인, 2008)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채택하여 사회적 자본을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라는 기본 개념 아래, 사회적 효율성과 발전을 촉진하는 무형의 자산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McElroy, Jorna, & van Engelen, 2006).

사회적 자본의 효과성에 관한 주된 전제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이라는 혼합체가 개인과 조직에게 매우 유용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의미하고(Adler & Kwon, 2002),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는 고용과 성과 창출의 핵심기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스킬, 태도, 건강 등의 기본능력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인적자본의 바탕 위에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 구성되고 파생되는 자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만으로는 개인의 성공과 사회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 자본에 따라 인적자본의 투입과 회수율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소진광(2003)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5가지 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신뢰나 직업상 거래관계에 대한 신뢰, 주변 개인과 가족들의 신뢰 등과 같은 신뢰기반 요소이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단체수, 이웃의 범위, 지역사회 리더십 등 네트워크 요소이다. 셋째, 지역사회 규범 인지 정도, 청소년 선도, 범죄율, 범법행위에 대한 신고율 등 규범준수와 관련된 사회적 규범 요인이 있다. 넷째, 지역사회 행사 참여횟수, 투표 참여율, 피선거권 행사의향, 공익단체 자문 참여 횟수, 지역사회 공공기관 이용횟수 등과 같은 참여기회 요인이 있다. 다섯째, 자원봉사활동 참여 횟수,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봉사단체에 대한 기부정도, 불우이웃에 대한 배려, 다양성의 포용력과 같은 이타적 성향 요인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인 특성들을 자원봉사활동을 이해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최중덕(2007), 이성록(2001), 김태룡·안희정(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최중덕(2007)은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지역사회 자원봉사는 시민교육의 한 틀이고 이러한 시민교육방법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위해 주도적으로 봉사학습을 전개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성록(2001)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와 사회적 자본의 한 요소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의식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작게는 부부와 자녀간의 관계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자본 요인에서부터 넓

계는 지역사회까지의 광범위한 범위로 사회 자본을 범주화하여 정의하고 이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원봉사를 제시하였다.

김태룡·안희정(2009)의 연구는 사회적 자본 형성이 자원봉사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자원봉사를 강화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봉사자의 특성인 이타성과 자아실현에 사회적 자본의 요소인 네트워크, 신뢰, 호혜성이 모두 각각의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준 등(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일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4,50대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활동이 사회적 자본중 사회참여, 신뢰, 호혜성, 관용, 네트워크 및 사회적 지원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 A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었다. 연구목적의 적절성과 수행의 편리성을 기초로 편의표집방법을 선택하였고, 2010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A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를 배포하여 224부(회수율:76.7%)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17부를 제외한 207부(유효회수율:69.0%)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 67명(32.4%), 여성 140명(67.6%)이었다. 연령은 40~49세가 68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50~59세(63명, 30.4%), 30~39세(34명, 32.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105명(50.7%), 고졸 60명(29.0%), 전문대졸(24명, 11.6%), 대학원졸(18명, 8.7%)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 166명(80.2%), 미혼 38명(18.4%)이었으며, 과반수에 해당하는 106명(53.3%)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였다. 직업유무의 경우, 130명(63.4%)이 직업을 가진 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65명(31.7%)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

## 2. 연구도구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자원봉사활동 특성, 사회적 자본 측정 3부분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은 류기형(2004)의 설문문항을 참고로 개발하여 자원봉사활동 분야,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횟수를 측정하였고, 자원봉사를 위한 교육과 지식정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발전과 성장의식) 22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설문문항은 김상민(2005)과 이양수(2008)의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을 측정할 수 있도록 43문항으로 초기에는 구성하였다(신뢰 15문항, 네트워크구축 14문항, 사회적 규범 14문항).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계층에 관한 의도적인 인식, 직업유무 등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으로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종속변인들의 구인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과 Varimax 직교회전방법을 활용하여 요인 적재량이 .5 이하인 문항들은 제거하면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신뢰변인은 총 9문항, 네트워크 13문항, 사회적 규범 13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 특성 및 사회적 자본 관련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설문지 신뢰도 분석결과, Cronbach's  $\alpha$  계수는 0.619~.887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 설계를 하고 1차 설문지 개발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전문가 및 자원봉사연구를 실시하였던 교수 2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검토를 요청한 후, 수정과 보완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경력이 있는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설문지 내용수준에 관해 검토하고 수정하였다. 서울시 A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의 정기모임 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를 실시하였다. 300부 배포 후 최종적으로 207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분석방법, 교차분석, 다중회귀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다수의 독립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 검정을 실시



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정결과, 모든 독립변수들에서 VIF 값이 10미만으로 제시되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개인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 차이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인식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자원봉사 관련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수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과 태도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자원봉사관련 교육과 지식정도	남성	67	2.69	0.892	-3.736***
	여성	137	3.16	0.815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남성	67	3.32	0.682	-3.538**
	여성	138	3.66	0.608	
자원봉사관련태도(발전과 성장의식)	남성	66	3.14	0.720	-2.737**
	여성	139	3.42	0.660	

주) \*\* $p < .01$ , \*\*\* $p < .001$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2〉 참조). 일원분산분석 결과, 60세 이상 봉사자들은 자원봉사관련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수준( $M=3.67$ ),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 $M=3.92$ )가 가장 높은 연령대였다. 30~39세 연령대는 모든 부분에서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였다.

<표 2>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차이

	연령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원봉사관련 교육과 지식 정도	20-29 <sup>a</sup>	13	2.88	0.961	5.969***	b < e c < e d < e
	30-39 <sup>b</sup>	34	2.66	0.887		
	40-49 <sup>c</sup>	67	2.93	0.852		
	50-59 <sup>d</sup>	63	3.01	0.844		
	60이상 <sup>e</sup>	27	3.67	0.528		
	합계	204	3.00	0.867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흥미와 가치)	20-29 <sup>a</sup>	13	3.37	0.761	5.883***	b < d b < e
	30-39 <sup>b</sup>	33	3.17	0.621		
	40-49 <sup>c</sup>	68	3.56	0.619		
	50-59 <sup>d</sup>	63	3.61	0.663		
	60이상 <sup>e</sup>	28	3.92	0.436		
	합계	205	3.55	0.651		
자원봉사 관련태도 (발전과 성장의식)	20-29 <sup>a</sup>	12	3.37	0.585	4.469**	b < e
	30-39 <sup>b</sup>	34	3.02	0.729		
	40-49 <sup>c</sup>	68	3.30	0.680		
	50-59 <sup>d</sup>	62	3.35	0.664		
	60이상 <sup>e</sup>	29	3.73	0.599		
	합계	205	3.33	0.690		

\*\*p<.01, \*\*\*p<.001

학력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3> 참조). 일원분석 분석결과, 다른 집단들에 비해 대졸 봉사자들의 인식 수준이 다른 학력 수준의 봉사자들에 비해 자원봉사활동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결과였다.

<표 3> 학력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차이

	학력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원봉사 관련 교육과 지식정도	고졸 <sup>a</sup>	58	3.15	0.819	3.354*	-
	전문대졸 <sup>b</sup>	24	3.38	0.906		
	대졸 <sup>c</sup>	104	2.84	0.843		
	대학원이상 <sup>d</sup>	18	3.01	0.941		
	합계	204	3.00	0.867		

	학력수준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흥미와 가치)	고졸 <sup>a</sup>	59	3.75	0.631	4.423**	a > c
	전문대졸 <sup>b</sup>	24	3.70	0.742		
	대졸 <sup>c</sup>	104	3.39	0.600		
	대학원이상 <sup>d</sup>	18	3.58	0.696		
	합계	205	3.55	0.651		
자원봉사 관련태도 (발전과 성장의식)	고졸 <sup>a</sup>	60	3.47	0.694	2.930*	-
	전문대졸 <sup>b</sup>	23	3.57	0.806		
	대졸 <sup>c</sup>	104	3.21	0.668		
	대학원이상 <sup>d</sup>	18	3.32	0.513		
	합계	205	3.33	0.690		

\*p<.05, \*\*p<.01

결혼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4〉 참조). t-분석결과, 자원봉사관련 교육과 지식수준에서 기혼(M=3.07) 봉사자가 미혼(M=2.68) 봉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4〉결혼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차이

	결혼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자원봉사관련 교육과 지식정도	미혼	38	2.68	0.986	-2.294*
	기혼	163	3.07	0.827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미혼	38	3.37	0.669	-1.870
	기혼	165	3.59	0.645	
자원봉사관련태도 (발전과 성장의식)	미혼	37	3.21	0.757	-1.107
	기혼	165	3.35	0.679	

\*p<.05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5〉 참조). 분석결과,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문항만 차이가 나타났다. 하위층(M=3.79)과 중상위층(M=3.79)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가 높은 반면, 자신이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와 가치인식 정도(M=3.36)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인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차이

구분	집단계층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자원봉사관련 교육과 지식정도	하위층 <sup>a</sup>	21	3.06	0.806	1.424	-
	중하층 <sup>b</sup>	60	2.83	0.850		
	중산층 <sup>c</sup>	104	3.08	0.851		
	중상층 <sup>d</sup>	12	3.23	1.042		
	합계	197	3.01	0.861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흥미와 가치)	하위층 <sup>a</sup>	21	3.79	0.517	3.390*	-
	중하층 <sup>b</sup>	58	3.36	0.726		
	중산층 <sup>c</sup>	106	3.59	0.588		
	중상층 <sup>d</sup>	12	3.79	0.835		
	합계	197	3.55	0.653		
태도 (발전과 성장의식)	하위층 <sup>a</sup>	21	3.65	0.502	2.091	-
	중하층 <sup>b</sup>	60	3.24	0.663		
	중산층 <sup>c</sup>	105	3.34	0.677		
	중상층 <sup>d</sup>	11	3.47	0.908		
	합계	197	3.35	0.677		

p&lt;.05

직업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6 참조〉). t-분석결과, 직업이 없는 봉사자가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봉사자들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및 지식정도, 흥미,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업유무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인식의 차이

구분	직업유무	N	평균	표준편차	t
자원봉사관련 교육과 지식정도	없음	63	3.44	0.670	6.285***
	있음	130	2.74	0.834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흥미와 가치)	없음	64	3.80	0.532	4.210***
	있음	129	3.41	0.642	
태도(발전과 성장의식)	없음	64	3.54	0.585	3.286**
	있음	129	3.21	0.684	

\*\*p&lt;.01, \*\*\*p&lt;.001

## 2. 개인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횟수의 차이

다음으로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기간 및 횟수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X^2=11.376$ ,  $p<.05$ ). 남성은 1년 미만 32명(47.8%), 1년에서 3년 미만 23명(34.3%), 3년-5년 미만 5명(7.5%)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1년 미만 48명(34.3%), 3년에서 5년 미만 23명(16.4%), 7년 이상 22명(15.7%) 등 장기간동안 자원봉사를 지속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기간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2=40.725$ ,  $p<.001$ ). 20~29세 등 젊은 층의 경우 전체응답자의 84.6%가 1년 미만의 봉사활동이었던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7년 이상이 27.6%로 높았다. 자원봉사활동기간과 연령 변인간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나 자신이 속한 계층에 관한 인식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기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각  $X^2=18.323$ ,  $p>.05$ ,  $X^2=18.716$ ,  $p>.05$ ). 결혼 유무의 경우, 미혼은 1년 미만이 23명(60.5%)으로 가장 많았으나, 기혼의 경우 1년 이상, 1-3년, 3-5년 등의 활동기간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2=11.951$ ,  $p<.05$ ). 또한 직업이 있는 경우보다는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오랜 기간 지속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X^2=22.463$ ,  $p<.05$ ).

다음으로 개인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자원봉사활동횟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주당 자원봉사활동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X^2=18.389$ ,  $p<.001$ ). 남성은 전체응답자의 49명(73.1%)이 주 1회 미만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주 1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로 남성보다 많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미만의 젊은 층보다 50대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횟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전체 과반수가 주 3회 이상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 횟수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X^2=49.340$ ,  $p<.001$ ).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고졸학력의 봉사자의 활동횟수가 많았으며,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인 봉사자들의 횟수는 주 1회 미만으로서 고졸학력 집단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X^2=37.851$ ,  $p<.001$ ). 직업 유무에 따라서도 직업이 없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X^2=55.786$ ,  $p<.001$ ). 결혼유무와 자신이 속한 계층 인식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각각  $X^2=3.346$ ,  $p>.05$ ,  $X^2=10.324$ ,  $p>.05$ ).

## 2. 개인특성별 자원봉사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계 분석

### 1) 개인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신뢰형성의 관계

개인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신뢰 전체평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7〉 참조), 모형의 설명량은 40%였다. 독립변수인 자원봉사자 개인특성 중 자신이 속한 계층을 명확히 인식할수록 신뢰가 잘 형성되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흥미( $B=0.215$ )와 태도( $0.260$ )가 높을수록 신뢰형성도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형성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요인은 자원봉사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태도와 자원봉사 활동 자체에 흥미와 재미를 인식하는 경우였다.

〈표 7〉 개인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신뢰형성의 관계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일반 특징	(상수)	1.864	0.333		5.591***
	성별(남=0, 여=1)	-0.049	0.070	-0.047	-0.697
	연령	-0.011	0.039	-0.023	-0.284
	교육수준	0.000	0.036	0.001	0.010
	결혼(미혼=0, 기혼=1)	-0.081	0.092	-0.064	-0.875
	자신이 속한 계층을 인식	0.107	0.042	0.166	2.569*
	직업유무(없음=0, 있음=1)	-0.065	0.087	-0.061	-0.740
자원 봉사 특징	자원봉사기간	0.028	0.025	0.077	1.123
	자원봉사횟수	0.020	0.038	0.042	0.524
	봉사활동관련 교육/지식	-0.032	0.046	-0.055	-0.697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0.215	0.083	0.277	2.590*
	태도(발전과 성장의식)	0.260	0.082	0.346	3.163**
F		9.921***			
R <sup>2</sup>		0.400			

### 2) 개인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네트워크 형성의 관계

개인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네트워크 전체평균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8〉 참조), 모형의 설명량은 52.8%였다. 독립변수 중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면, 독립변수 자원봉사자 개인특성 중 직업유무는 네트워크 형성과 관련성이 높았는데,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네트워크 형성 측면에서 부적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뢰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0.448)가 높을수록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개인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네트워크 형성과의 관계 분석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일반 특징	(상수)	1.759	0.326		5.394***
	성별(남=0,여=1)	-0.078	0.068	-0.070	-1.156
	연령	-0.024	0.038	-0.048	-0.652
	교육수준	-0.019	0.035	-0.035	-0.536
	결혼(미혼=0,기혼=1)	-0.047	0.090	-0.034	-0.525
	자신이 속한 계층을 인식	0.037	0.041	0.053	0.921
	직업유무(없음=0,있음=1)	-0.172	0.085	-0.148	-2.009*
자원 봉사 특징	자원봉사기간	0.009	0.025	0.021	0.350
	자원봉사횟수	-0.001	0.035	-0.002	-0.035
	봉사활동관련 교육/지식	0.071	0.045	0.112	1.560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0.070	0.081	0.083	0.867
	태도(발전과 성장의식)	0.448	0.081	0.542	5.528***
F		16.205***			
R <sup>2</sup>		0.528			

### 3) 개인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사회적 규범 형성의 관계

개인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사회적 규범 전체평균을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9>), 모형의 설명량은 29.3%였다. 특히, 사회적 규범 형성과 관련성이 있는 요인은 신뢰형성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흥미(B=0.199)과 태도(B=0.166)였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사회적 규범 형성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lt;표 9&gt; 개인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과 사회적 규범 형성의 관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B	표준오차	$\beta$	
일반 특징	(상수)	2.687	0.341		7.878***
	성별(남=0,여=1)	0.007	0.071	0.007	0.096
	연령	0.033	0.039	0.075	0.848
	교육수준	-0.029	0.037	-0.063	-0.806
	결혼(미혼=0,기혼=1)	-0.022	0.094	-0.019	-0.236
	자신이 속한 계층을 인식	0.020	0.043	0.033	0.472
	직업유무(없음=0,있음=1)	-0.103	0.089	-0.103	-1.155
자원 봉사 특징	자원봉사기간	-0.015	0.026	-0.041	-0.559
	자원봉사횟수	-0.032	0.037	-0.073	-0.861
	봉사활동관련 교육/지식	0.024	0.047	0.045	0.521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흥미와 가치)	0.199	0.085	0.271	2.343*
	태도(발전과 성장의식)	0.166	0.083	0.235	1.988*
F		6.260***			
R <sup>2</sup>		0.293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의 자발적이며 조직적인 자원봉사 활동과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기간 및 횟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고졸학력의 봉사자가 대졸과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봉사자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개인특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와 활동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 즉 여성들은 자원봉사 관련 전문교육과 지식수준, 관심과 태도 등 모든 분야에서 남성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따라서는 60세 이상의 봉사자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고, 자원봉사활동 인식도 월등히 높았다. 특히, 30~39세의 연령대와는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이는 조휘일(1991)의 연령의 증



가에 따라 이타적 행위와 관련성이 높은 감정이입의 관심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이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기혼이 미혼보다 고졸학력 봉사자가 대졸봉사에 비해, 직업이 없을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지식, 흥미, 태도 등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고졸학력 봉사자가 높게 나타났고 대졸봉사의 관심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를 통한 발전과 성장에 대한 인식 측면도 이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McPherson와 Rotolo(1996)의 교육수준이 자원봉사활동의 예측에 중요한 변수이며, 교육은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여 주기 때문에 교육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자원봉사자의 개인적 특성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 개인 특성 중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무에서 상관을 보였고, 자원봉사활동 특성에서는 활동 기간 및 횟수에 따라 자원봉사 관련 교육과 지식정도,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태도전반과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특성 및 자원봉사활동의 특성과 신뢰형성의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 개인적 특성 중 자신이 속한 계층을 명시적으로 인식할수록 신뢰형성이 잘 이루어지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는데 가장 관련성이 높은 변인이었다.

셋째, 개인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네트워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특성 중 직업유무는 네트워크 형성에 상관이 있으며 특히 직업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형성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네트워크 구축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넷째, 개인특성 및 자원봉사활동 특성이 사회적 규범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적극적일수록 사회적 규범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차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더 많은 여성층, 고령층, 직업이 없는 경우, 고졸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 지식과 인식, 흥미, 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결과 자원봉사 활동기간과 횟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식과 흥미,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5년 이상 7년 미만의 장기간 활동가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흥미와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장기간 자원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분명한 '가치', 어떤 활동이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재미',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배우고, 점검·관리할 수 있는 '계획', 참여계층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열심히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 등을 수반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관련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지역의 일거리와 연계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활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쌓이게 되고, 이러한 역량은 하나의 재능으로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으로 활용될 가치가 충분하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기간이 7년을 넘어갈 경우 자원봉사에 대한 흥미와 태도(자원봉사를 통한 자기 성장 및 발전가능성)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자원봉사활동이 지속된 자원봉사자 집단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경제활동 참여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고려되어 전문 자원봉사자의 역량이 유희화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일거리와 관련하여서는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방정부의 일자리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의 그룹별 전문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결과 60세 이상의 고령자층과 여성 집단의 자원봉사활동이 적극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퇴직이후 제 2의 삶을 준비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역량, 기술 등을 활용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들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와 연계함으로써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전문자원봉사활동분야가 개발되어 활용된다면, 여성인력의 유희화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꾸준한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와 네트워크는 향후에 직장을 가지거나 직장 내 조직문화에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참여 전단계로서의 사회참여 방안으로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자원봉사 활동 분야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강효민·박기동. (2008). 지역사회에서 스포츠클럽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21(4): 845-863.
- 김경동. (2007). 급변하는 시대의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아르케』.
- 김동현·김영재·이영찬. (2006). 기업의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김상민. (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3(2): 155-237.
- 김태룡·안희정. (2009).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분석. 『한국정책연구』, 9(3): 197-218.
- 김태준·최상덕·장근영·이기홍.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남기철. (2007). 자원봉사론. 『나남출판』.
- 류기형. (2004). 자원봉사론. 『양서원』.
- 박혜원·문형구. (2009).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자본. 『한국비영리학회』, 7(3): 169-194.
- 소진광. (2003).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손원익·박태규. (2008). 한국의 민간기부에 관한 연구: 규모, 구조와 특징, 관련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이성록. (2001). 자원봉사행동에 대한 다차원적 동인력. 『서울여자대학교』.
- 이양수. (2008). 신뢰유형, 관료의 형태, 국정운영평가가 정부역할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논집』, 20(2): 533~553.
- 정홍인. (2008). 팀 내 무형식학습과 사회적 자본이 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 조선주·한동우·이선행. (2009).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지원방안 연구. 『여성정책연구원』.
- 조휘일. (1991). 한국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 최종덕. (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135-161.
- Adler, P. S., & Kwon, S.(2002). Social capital: Prospects for a new concep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1), 17-40.
- Chan, A. C., Cheng, F., Fong, F. M., & Lai, C. (2006). Social Capital Measures for Volunteer Programmes. Retrieved March 22, 2011 from <http://www.volunteerlink.net/datafiles/D089.pdf>
- McElroy, M. W., Jorna, R. J., & van Engelen, J.(2006). Rethinking social capital

- theory: a knowledge management perspective. *Journal of Knowledge Management*, 10(5), 124-136.
- McPherson, J. M. & Rotolo, T. (1996). Testing a Dynamic Model of Social Composition: Diversity and Change in Voluntary Grou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179-202.
- Putnam, R.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27-40.
- Raad, de. (2003). Volunteerism, at the heart of social capital. Retrieved October 2, 2010, from <http://www.unvolunteers.org/index.htm>
- Robinson, D. & Williams, T. (2001). Social capital and voluntary activity. *Social Policy Journal of New Zealand*, 17, 52-71.
- Tsai, W., &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The role of intra firm network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